

# 여주시, 경도 해양단지 농지부담금 32억 멋대로 감면

### 감사원, 지자체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감사 결과

### 전남도·일부 시군, 부담금 관리 엉망 90억 못거뿔

재정난에 허덕이는 전남도와 일부 시·군이 부담금 관리를 엉망으로 해 수십억원 대 부담금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부터 3월25일까지 전남도 등 10개 시·도와 기초단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를 특정감사한 결과 부적절하게 운영돼 온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6월 300만㎡ 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도 이를 전남도에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 훼손면적 235만9700㎡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6억4962만6750원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2095만9540㎡ 규모의 개발사업(생태계 훼손면적 2045만5968㎡)의 승인을 통보했는데 도 생태계보전협력금 10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등 총 14건의 사업에 대해 협력금 25억

57만1090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시는 지난 2009년 12월 전남개발공사 추진중인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추진중인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도시지역에 위치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50%의 감면율을 적용해 정당 부과액 64억7182만3740원보다 32억3591만1870원이 적은 32억3591만1870원만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 징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0년 10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모 지구 실시계획을 승인한 이후 산지전용 협의 내용이 포함된 승인사항을 산림청에 통보하지 않아 해남군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4억

9072만3540원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부담금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며 "잘못 부과되거나 징수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는 제대로 부과 징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1년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정 이후 최근 10년간 부담금 징수금액은 매년 평균 6%씩 증가해왔으며, 지난 2013년 16조4000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승원 칼럼

그리스의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소설가들에게 농담 아닌 농담을 했습니다.

"한심한 영혼아, 너는 돈을 주고 포도주를 사고 빵을 사고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이 아니라, 흰 종이를 꺼내서 거기다가 빵, 포도주, 고기라고 쓰고 그 종이를 먹는구나."

소설가들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주 한심해보이지만,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인 삶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잡된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소설가들의 책가쿠 막중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농담인데, 다음 농담은 매우 부정적인 농담입니다.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된 한 사람이 저승에 갔다가 운이 좋아 이승으로 돌아오려 하면서, 뇌와 영혼을 바꾸어 끼고 싶어 '뇌를 파는 가게'로 갔습니다.

아인슈타인, 뉴턴, 스티브 잡스 같은 과학자들의 뇌와 국회의원을 수차례 씹 해먹은 정치인들의 뇌와 배트맨 같은 예술가들의 뇌와 기업가의 뇌와 도

그 소설가는 어느 날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남산의 한 가옥으로 끌려가서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신문의 문화부장, 그 소설가의 한 친구도 끌려가서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 서술 퍼러던 시절에, 광주 출신 소설가 임철우씨가 자기의 소설 속에 인용한 농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광주의 비극 속에서 유행한 하나의 유언비어였습니다.

"한 여관방에 들어간 두 남녀가 발가벗은 채 배를 맞대었는데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으므로 흠이불에 덮인 채 00병원으로 실려 갔다더라. 남자는 광주부대 출신이고, 여자는 희생된 남자의 아내라더라. 지금 그 병원 주위에는 구경꾼들이 어떻게나 많이 밀려드는지 경찰이 저지선을 쳐놓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그들을 몰아내고 있다더라."

작가는 여름 밤하늘의 개뿔별처럼 눈을 부릅뜨고 날아다니는 유언비어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유언비어란 것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 진실을 말하지

## 농담 아닌 농담, '한심한 영혼아'

스토에프스키 같은 소설가의 뇌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게 주인에게 과학자의 뇌를 사서 갈아 끼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도리질을 하면서 "과학자나 예술가나 소설가나 기업가들의 뇌는 지나치게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닳고 닳아 폐기처분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들의 뇌는 대강대강 사용했기 때문에 신분이 다 닳았습니다. 이것으로 갈아 끼우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농담보다 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유언비어입니다.

80년대 초, 광주의 피를 제물로 대통령이 된 정두환은 여러 가지로 희화되었습니다. 한 소설가가 신문에 연재한 소설 속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모든 대통령이란 사람들은 텔레비전 카메라를 이끌고, 시장이나 공장을 방문하여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 흔들어주고, 어떤 경우에는 포옹을 해주기도 하는데, 시장이나 공장의 순수한 이들은 대통령과 악수한 손을 씻지 않고 살고 싶어 하지만, 대통령들은 돌아서자마자 까맣게 잊어버린다."

못하게 억압하면 속출하게 마련인데, 그것은 일종의 집단 무의식의 발로입니다.

바이흐로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당과 야당과 유가족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을 위해 유가족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면서 국민들의 눈을 민생문제로 돌리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오면 언제든지 만나주고 특별법을 만들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다 밝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는데,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요. 딱딱한 정국 속에서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풀려나갈까요. 만일 유족들이 바라는 대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혹시 어떤 알 수 없는 유언비어가 속출하게 되지 않을까요.

농담이나 유언비어가 개뿔불이처럼 눈 부릅뜨고 날아다니는 사회는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므로, 정치지도자들은 우리 사는 세상이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통치를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소설가>

### 민선 6기 인수위원회 활동 이명규 광주대 교수

## 광주시 핵심 7개 TF·위원회 참여

### "범위 방대·과도한 개입" 지적

민선 6기 인수위원회로 활동했던 현직 대학교수가 광주시의 핵심 7개 태스크포스(TF)팀과 위원회 위원 등으로 참여해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6기 인수위원회인 '희망 광주 준비위원회'에서 주요 현안 TF팀장을 맡았던 이명규 광주대 교수는 광주시의 핵심 현안을 다루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TF팀 ▲KTX 광주역 진입 논의 TF팀 ▲광주군 공항 이전(안)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회 등에 참여했다.

이교수는 특히 도시철도 2호선 TF 활동과정에서는 TF위원 32명 중 12명을 직접 추천하는가 하면 일부 TF팀의 성향이 자신과 다르다며 추가로 TF위원을 추천하기도 했다. 이에 반발해 일부 TF위원은 사퇴했다.

이 교수는 이외에도 광주시의 각종 현안 협의기관인 위원회 4곳(광역과제심의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산업입지심의위원

회, 광주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위원회는 활동시 매 회 최대 15만원의 수당도 받는다.

이 교수는 현재 광주대학교에서 2학기 18시간(주) 강의를 진행중이며, 올 1학기에는 19시간을 강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광주시청 안팎에서는 이 교수의 활동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교수가 광주시의 민감한 현안마다 참여할 정도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광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이 교수를 실제로 의식해 주요 현안 TF팀마다 모시기 경향에 나섰다는 주장도 나온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새 체제가 출범하면 실제 교수진이 거론되기 마련인데, 민선 6기에는 이(명규) 교수라는 말이 있다"면서 "민감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힘있는 실세가 있으면 그만큼 힘을 받게 된다. 전문성을 떠나(실제를) 선호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lucky@



동아시아 기후포럼 광주시 개막

제4회 동아시아 기후포럼 개막식이 16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동아시아 기후포럼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며 기후변화 재양시대 동아시아의 기후 전략 등이 논의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순천·장흥 등 전국 7곳 '정부 3.0' 모범 자치단체로 육성

안행정부는 순천시와 장흥군 등 전국 6개 시·군·구와 세종시를 '정부3.0' 모범 자치단체로 육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3.0이란 정보개방·공유, 부처 간 소통·협력으로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원리이다.

안행부는 226개 기초 자치단체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세종특별자치

시, 인천 남동구, 대구 남구, 충북 충주 시,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전남 장흥군을 정부3.0 모범자치단체 사업 지자체로 선정했다.

안행부는 7개 자치단체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돕고, 자치단체가 발굴한 창의적인 사업에 대해 재정과 인력 지원을 추진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4-GNI-25-0093

# 보청기 구입, 이렇게 하세요!!

## - 대한보청기 -

- 01. 본사 직영센터**
  - ▶ 시중 대리점 중간 유통 마진 없이 본사 직영가입.
  - ▶ 우수한 제품만을 취급 및 정기 보증 기간 혜택. (2~3년)
  - ▶ 보장보험으로 도난, 분실, 파손 등 제품 사고시 안심·보상지원.
  - ▶ 즉석 A/S, 무상받대리, 무상 청력 검사 및 보청기 관리, 친절 서비스 등 무상 혜택이 다양함.
- 02. 맞춤렌탈**
  - ▶ 한달 3~4만원이면 수백만원짜리 고급·고가 보청기도 마음대로 쓸 수 있음.
  - ▶ 보청기 가격 걱정 할 필요 없음.
  - ▶ 평생 1회 가입비외의 더 이상 아무 비용이 들어갈 일 없음.
- 03. 30개월 장기신용할부**
  - ▶ (예) 170만원 고급 보청기 ÷ 30개월 = 월 56,666원임.
- 04. 천사 무료·홈 서비스**
  - ▶ 전국 365일, 전라도, 남해, 강원지역, 동 지방 산골까지도 천사팀 무료 방문.
  - ▶ 거동이 불편하신분, 비싼신 자녀분들을 위한 무료 홈 서비스 임.
  - ▶ 매장과 똑같은 시스템으로상담, 청력검사, 맞춤일체를 봉사 해드립니다.

천사 무료 방문 홈 서비스

**1599-9040**

맞춤렌탈 전용상담 신청!!

**1544-9040**

전국, 어디서나 365일! 지금 상담중...!!

**대한보청기** DAEHAN HEARING AID www.maxo.co.kr
 
 ◆강안본사 02)2248-5600 ◆충북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감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여의도본점 02)761-8883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분당본점 031)707-5787
   
 ◆앞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45-2006 ◆청주직영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서부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부(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시사본점 051)819-0038 ◆울산본점 052)256-9050 ◆마산-창원본점 055)222-305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